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6호 [루계 제24994호] 주제 104(2015)년 8월 4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날인 7. 27을 뜻깊게 맞이하고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천만군민이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혁사적인 진군길에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가 함께 읊어지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신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장소는 백두의 위대한 령장들을 높이 모시여 반체혁명승리의 전통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빛내여온 태양민족의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풍어넘치고 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 오르고 장내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김일성, 김정일혁명강군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여 가시는 우리 국가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김정은동지에 대한 흠토의 열기로 용암처럼 세차게 풀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려영길동지 등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현곡 『우리의 7. 27』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백두산악파도 같은 강인답대한 불굴의 배짱과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빙대한 침략군대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수호, 원쑤격멸의 전민항전에 불려일으키시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평활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영예에 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시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가렬한 전화의 그날 전인민적인 전선환원가요로, 원쑤격멸의 남진행군가요로 전선과 후방에서 높이 울려퍼진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승리하고 돌아오라』, 『우리는 승리했네』 등의 전시가요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둑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백질불굴의 투쟁정신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지고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멸의 수령찬가로 간직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의 선율이 장중하게 울리자 장내는 백두의 천출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흥모심으로 뜨겁게 젖어들었다.

관람자들은 날강도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핵세력의 수적, 군사기술적 우세를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정신으로 짓부서버린 전화의 나날들을 격정속에 들이켜보았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전쟁의 3년』은 칠량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에 의해 강요된 가렬한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훌린 피가 얼마나 값비싼것이며 위대한 낸대의 승리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영원히 잊지 말고 대를 이어 계승해야 한다는 철리를 관람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버린 근위부대 용사들의

위훈을 형상한 남성증창과 경음악 『근위부대자랑가』와 존엄한 전화의 나날에 높이 울려퍼지며 싸우는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고무추동한 남성독창과 무반주합창 『전호속의 나의 노래』, 남성합창과 판현악 『문경고개』, 너성 2중창과 남성방창 『샘물터에서』 등의 종목들도 무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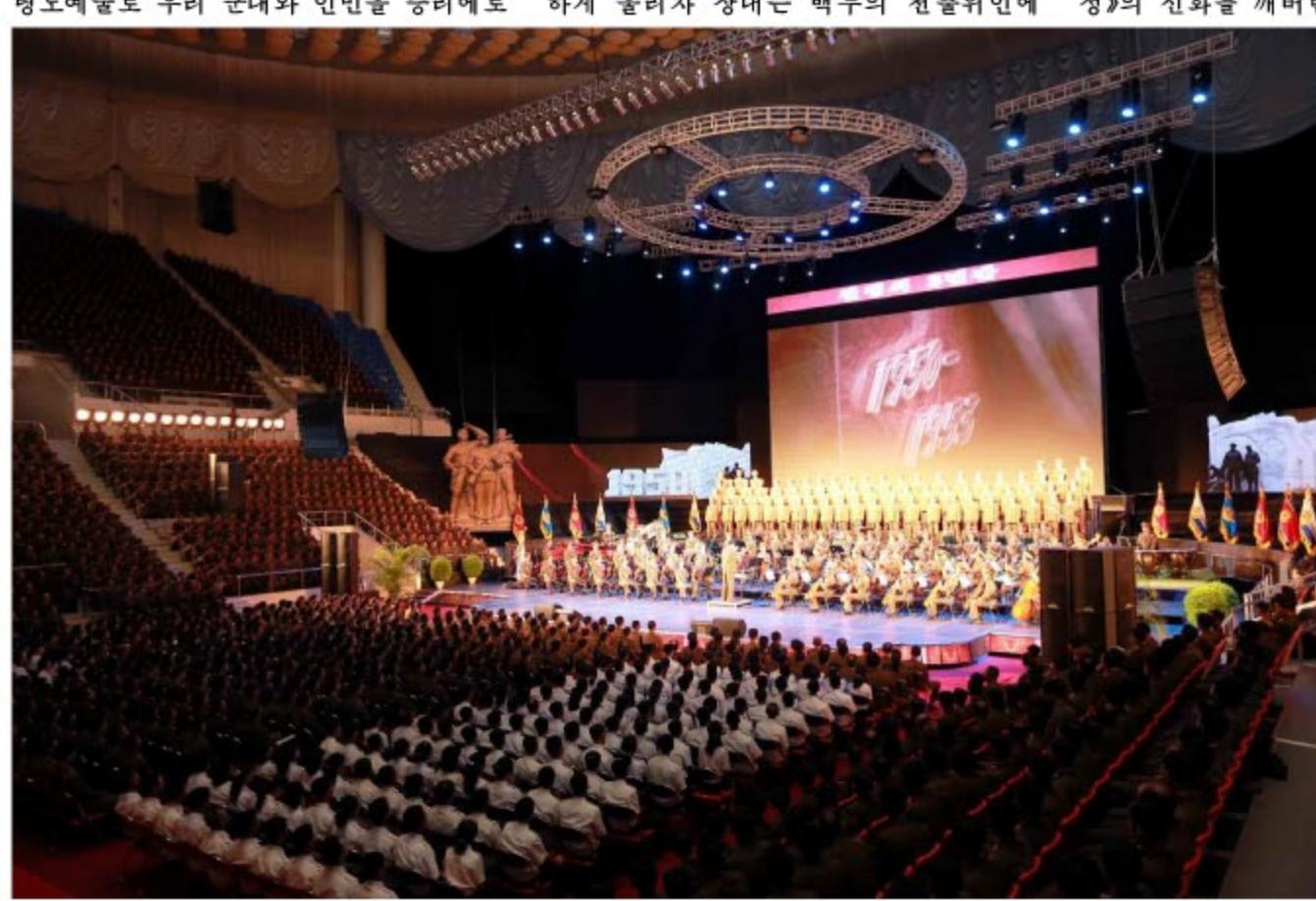
일편단심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주체조선의 새 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를 반영한 남성합창 『김정은장군찬가』, 『영광의 사열행진』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선군혁명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판현악과 노래현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에서 출연자들은 미제가 이 땅에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다지고 다져온 무적의 총대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반미대결전의 승리의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선군조선의 의지가 맥박지는 출중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으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한 종결시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끌없이 빛내여나가며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사회주의수호전파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자!

## 인민성의 높이하자 당성의 높이

자강도당일군들이 언제나 심장에 앓고 사는 고귀한 지침이 있다.

그것은 세해전 2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뜻깊은 친필일이다.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문제, 애로들을 세심히 보살펴주고 제때에 풀어주며 인민들의 의의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절세의 위인의 절절한 당부는 그들에게 있어서 실천의 좌우명으로 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창문 북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1월 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수 새겨가는 도당일군들의 기슴은 흥분으로 설레었다. 특히 당작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둘러싸여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은 일군들의 심장을 활황 두드렸다.

어느 날 도민위원회 일군들과 무리를 미루한 도당책임일군은 인민생활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의 실태에 주목을 들리게 되었다.

정주시 남호리당 위원회 일군들이 지나고 있는 농장원들에 대한 협신적 복무정신과 사업기 품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지난해 이른바 어느 날이었다. 제 6 작업반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거실을 내기기를 하던 리당비서 조명길동무의 귀에는 두세 명 농장원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모례 시험이 오래 간만에 온다는 데 시내에 있는 산점에 갔다가 와야겠어.』

『나와 함께 가자요. 배일이 시 아버님 생일인데 산점에 필요한 상품들이 없다지 않아요.』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리당비서는 생각하였다.

(시속제자까지 왕복 4 0여리 길이니 너인들이 갔다오면 서너 시간은 걸리겠지. 그런 사정이 있는 농장원들이 어찌 그를 뛰어겠는가. 이런 사정을 제때에 알고 대책을 세울 대신 가동률을 높이자고 호소한 했으니…)

그날 저녁에 리당비서는 리상점에 들려보았다.

상품도 많지 못했지만 상점안에 어수선하였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 면 안해에게 부탁하곤 하던 그였다. 그마다 보니 상점에 별로 가보지 못하였다. 당시 군이 상점에 물건을 사려는 것을 쭉 스며운 일로 여기기까지 하였으

### 자강도당 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벗고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워 나갔다.

도당위원회는 혜당 단위들에서 초기군의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일군들이 난판앞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고 대중의 정신력을 풍족발시킬 때 대중 문제에 중요하게 강조되었으며 유류와 물건기제보장문제, 원료를 보장하게 된 단위들에서 말은 파제를 무조건 수행함에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그리고 시, 군들에서 식료공장현대화추진정형을 해당 단위 위원회 조직부가 정상적으로 정약하면서 적극 따랐던 주도로 하였다.

단포, 위원, 고봉, 우시, 봄령을 비롯한 시, 군들에 내려간 도당일군들의 정신력을 풍족발시켜 회사운영 정상화로 향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직으로 풀어나가는 사업을 전공적으로 내밀고 있다.

지금도 도당위원회는 일군들의 현대화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주타격방향으로 제기하고 초산군에서 먼저 모범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창당 일흔까지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 있는 식료공장들을 현대화 및 정치사업과 이신작착은 위해 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도당위원회는 지방공업공장들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지난 3월 강제기초식품공장의 생산정형을 해제하면 도당책임일군은 원료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산에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하고 그들의 사업 조건을 보장해줄 문제 등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우도록 공장일군들을 문답시켰다.

그는 즉시 현장에서 혜당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일군들이 난판앞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고 대중의 정신력을 풍족발시킬 때 대중 문제에 중요하게 강조되었으며 유류와 물건기제보장문제, 원료를 보장하게 된 단위들에서 말은 파제를 무조건 수행함에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협의회를 통해 각설된 일군들은 앞세워 밭이 텁도록 뛰면서 대중의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국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공장에서 생산상황의 동율이 올려퍼지게 되었으며 상반년 기초식품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도 일민에 대한 협동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협선식정치사업과 이신작착으로 일군들과 대중의 정신력을 풍족발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도당일군들의 창신한 사업 기틀을 염불수 있다.

인민에 대한 협신성의 높이이자 당에 대한 충실히성의 높이라

는 확고한 판관을 지니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꽂아우기 위한 투쟁을 하였던 그는 국가과학원 중앙벼섯연구소와 컴퓨터방제계를 구축하고 새 기술을 충분히 열람할 수 있게 할 때 대한 문제, 실력있는 인재들을 배치

본사기자 김승표

『산정의 수리 개』 집단으로 불리우는 송전선 건설사업소에 대한 취재에 우리

이 있다.

농장원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체에 알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당일군들의 일상사업과 생활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투쟁기풍을 가지고 일해나가면 이곳 농장처럼 농사도 잘 치고 농장원들의 생활도 나날이 윤락해지는 농장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석

『큰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넘어야지요.』

처음에 우리는 사업소 초급 당일군이 한 번 말을 산을 넘고 넘으며 송전선을 끌어가는 사업소의 작업장 특성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 말로 어기였다.

그러나 취재과정에 우리는 그 말의 진의를 알게 되었다.

농장원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체에 알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당일군들의 일상사업과 생활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투쟁기풍을 가지고 일해나가면 이곳 농장처럼 농사도 잘 치고 농장원들의 생활도 나날이 윤락해지는 농장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석

『큰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넘어야지요.』

처음에 우리는 사업소 초급 당일군이 한 번 말을 산을 넘고 넘으며 송전선을 끌어가는 사업소의 작업장 특성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 말로 어기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 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사업소의 현 조건에서 공사를 벌린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사업소가 맡고 있는 국가적인 대상건설과 함께 하여 일군들은 대상건설에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장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체에 알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당일군들의 일상사업과 생활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투쟁기풍을 가지고 일해나가면 이곳 농장처럼 농사도 잘 치고 농장원들의 생활도 나날이 윤락해지는 농장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석

『큰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넘어야지요.』

처음에 우리는 사업소 초급 당일군이 한 번 말을 산을 넘고 넘으며 송전선을 끌어가는 사업소의 작업장 특성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 말로 어기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 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사업소의 현 조건에서 공사를 벌린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사업소가 맡고 있는 국가적인 대상건설과 함께 하여 일군들은 대상건설에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장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체에 알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당일군들의 일상사업과 생활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투쟁기풍을 가지고 일해나가면 이곳 농장처럼 농사도 잘 치고 농장원들의 생활도 나날이 윤락해지는 농장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석

『큰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넘어야지요.』

처음에 우리는 사업소 초급 당일군이 한 번 말을 산을 넘고 넘으며 송전선을 끌어가는 사업소의 작업장 특성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 말로 어기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 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사업소의 현 조건에서 공사를 벌린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사업소가 맡고 있는 국가적인 대상건설과 함께 하여 일군들은 대상건설에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장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체에 알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당일군들의 일상사업과 생활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투쟁기풍을 가지고 일해나가면 이곳 농장처럼 농사도 잘 치고 농장원들의 생활도 나날이 윤락해지는 농장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석

『큰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넘어야지요.』

처음에 우리는 사업소 초급 당일군이 한 번 말을 산을 넘고 넘으며 송전선을 끌어가는 사업소의 작업장 특성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 말로 어기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 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사업소의 현 조건에서 공사를 벌린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사업소가 맡고 있는 국가적인 대상건설과 함께 하여 일군들은 대상건설에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장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체에 알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당일군들의 일상사업과 생활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투쟁기풍을 가지고 일해나가면 이곳 농장처럼 농사도 잘 치고 농장원들의 생활도 나날이 윤락해지는 농장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석

『큰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넘어야지요.』

처음에 우리는 사업소 초급 당일군이 한 번 말을 산을 넘고 넘으며 송전선을 끌어가는 사업소의 작업장 특성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 말로 어기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 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사업소의 현 조건에서 공사를 벌린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사업소가 맡고 있는 국가적인 대상건설과 함께 하여 일군들은 대상건설에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장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체에 알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당일군들의 일상사업과 생활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투쟁기풍을 가지고 일해나가면 이곳 농장처럼 농사도 잘 치고 농장원들의 생활도 나날이 윤락해지는 농장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석

『큰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넘어야지요.』

처음에 우리는 사업소 초급 당일군이 한 번 말을 산을 넘고 넘으며 송전선을 끌어가는 사업소의 작업장 특성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 말로 어기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 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사업소의 현 조건에서 공사를 벌린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사업소가 맡고 있는 국가적인 대상건설과 함께 하여 일군들은 대상건설에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장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체에 알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당일군들의 일상사업과 생활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투쟁기풍을 가지고 일해나가면 이곳 농장처럼 농사도 잘 치고 농장원들의 생활도 나날이 윤락해지는 농장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석

『큰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넘어야지요.』

처음에 우리는 사업소 초급 당일군이 한 번 말을 산을 넘고 넘으며 송전선을 끌어가는 사업소의 작업장 특성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 말로 어기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 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사업소의 현 조건에서 공사를 벌린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사업소가 맡고 있는 국가적인 대상건설과 함께 하여 일군들은 대상건설에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장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체에 알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당일군들의 일상사업과 생활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투쟁기풍을 가지고 일해나가면 이곳 농장처럼 농사도 잘 치고 농장원들의 생활도 나날이 윤락해지는 농장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석

『큰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넘어야지요.』

처음에 우리는 사업소 초급 당일군이 한 번 말을 산을 넘고 넘으며 송전선을 끌어가는 사업소의 작업장 특성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 말로 어기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 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사업소의 현 조건에서 공사를 벌린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사업소가 맡고 있는 국가적인 대상건설과 함께 하여 일군들은 대상건설에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장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체에 알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 당일군들의 일상사업과 생활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투쟁기풍을 가지고 일해나가면 이곳 농장처럼 농사도 잘 치고 농장원들의 생활도 나날이 윤락해지는 농장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석

『큰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넘어야지요.』

처음에 우리는 사업소 초급 당일군이 한 번 말을 산을 넘고 넘으며 송전선을 끌어가는 사업소의 작업장 특성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 말로 어기였다.



| 공동구호에서 |

#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당장건 일흔돌까지 훌륭히 완공하라!

## 완공의 날을 앞당긴 능숙한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월군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봉이 큰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건설과제를 대상별로, 단계별로 봉이 번역 나게 해제하라 합니다.』

전력공업성련단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청천강을 보래한 땅원의 강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보람찬 뿐에 한사람같이 떠나온 공사장마다에서 눈부신 기적과 자랑찬로 뛰어들고 있다.

수백리 청천강전역에서 산정

의 수리개로서의 기상과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온 이들은 수백기의 철탑세우기와 방대한 양에 달하는 송전선 1회선들이며 2회선들이기를 예정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끌어내려와 회전장을 휘있게 열어제기 대답하고도 봉이 큰 일생과 떠어놓고 생활할 수 없다.

철탑공사에 진입한 레단이 힘을 집중하여 기초골짜를 물이 번져 나가니 그칠수 없었다. 학경복도대, 송전선건설사업소대에 떠나온 구간에서 뜻밖의 정황으로 토선변경이 제기되었으나, 이미 진전한 기초골짜에 봉력을 비롯하여 많은 품이 듣는 들풀을 떠내치고자 했지만 힘조건을 어겨내며 말은 대상파제들을 높은 절적수준에서 훌륭히 해제하고 있는 이 혁신적성과

를 언제나 제기되는 정황에 맞게 능숙한 작전을 펼치고 공사장마다에서 환한 실천력으로 전격의 돌파구를 휘있게 열어제기 대답하고도 봉이 큰 일생과 떠어놓고 생활할 수 없다.

철탑공사에 진입한 레단이 힘

이들은 각 대대들이 해당 지역으로 시급히 진출하여 가설건물건설을 짓는 시일안에 끌어내고 나무베기와 기초골짜를 물이 번져 나가니 그칠수 있도록 레단과 함께 협력적인 공사들을 대답해 받아들이며 앞선 경험들을 넓혀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밟고나감으로써 모든 대대들에서 대내적 기술혁신의 불길높이 맡은 과제들을 휘있게 해제하였다.

특히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

극 밤아들이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부족 높이면서 설밀전, 텁체전을 범려 끌어 2 9기의 송전탑세우기를 남기면서 끌어내었으며 레단이 완강한 공격전으로 짧은 시간에 7개의 경간에 대한 송전선들이기를 해제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청안북도와 학경북도, 평양시

와 평안남도, 남포시대대의 풍격대원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로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철탑부분을 끌어내고 조립, 송전선들이기 전력을 휘있게 벌려 커다란 철진을 이룩하였다. 학경남도대대와 송전선건설사업소대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독특한 투쟁방법과 사도식운반, 새로운 기초골짜방법을 대답하게 받아들이며 높은 실력을 기록하였다. 특히 레단의 각 대대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훌륭한 신심에 넘쳐 공사장마다에서 배설물들의 투쟁정신과 단속에 기상을 줄여놓았던 힘을 펼쳐 끌어내고 전력을 휘있게 벌려 주었다.

특히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각 빙진소 건설장에서 발전소운영기업 소진을 펼쳐 끌어 2 9기의 송전선들이기로 보장함으로써 계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3호로부터 1 2호발전소건설장까지의 수배리 전역에서 진척되고 있다.

일군들의 능동적인 전투조직

과 외장재바르기 등을 성과적으로 끌어냈다. 회천 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황해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남은 여러 대상공사와 함께 1 3동의 살립집건설작전을 통이 크게 펼치고 힘있게 끌고나감으로써 기초골착과 축조, 지붕공사와 내외부 미장, 울타리공사를 끌어낸 혁신을 일으켰다.

회천 8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1 2동의 살립집기초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기세로 끌어내며 축조와 지붕봉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동시에 다그쳤으며 내부공사도 원만히 진행하였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 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려단에서 1 3동, 남포시려단에서 1 0동, 철도성, 학경남도려단에서 각각 1 1동, 평안북도려단에서 1 0동, 금강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6동을 건설한 후

현장 지휘부 일군들은

제10동에서 6동을 건설한 후

비로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각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에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